[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미국 ETF 신규상장 트렌드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ETF 김진영 jykim@kiwoom.com
RA 조호준 hojun.cho@kiwoom.com

Issue Brief

ETF 투자영역 확대와 전략 다변화

ETF 시장의 상품 혁신이 투자대상 확대와 운용전략 다변화로 구체화되는 양상. 최근 10월 한 달간 미국에 신규 상장된 ETF를 살펴보면, AI 산업의 성장 수혜를 세분화해 담는 테마형 상품과 옵션·구조화·대체자산·자산배분을 결합한 전략형 상품 출시가 두드러짐. 과거 주요 지수나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 확보가 ETF 활용의 중심이었다면, 최근 상품 경쟁은 특정 산업의 핵심 밸류체인을 선별하거나 투자자의 위험 선호에 맞춰 손익구조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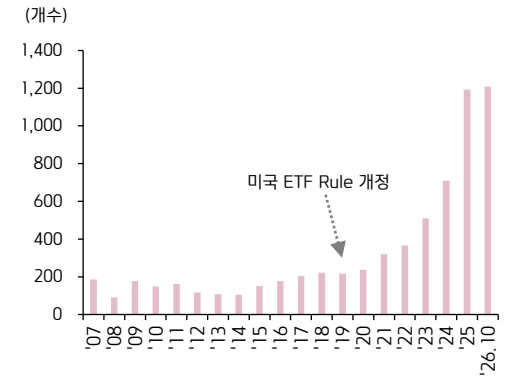
AI 투자, 밸류체인 세분화와 투자자산 확대

주목할 흐름은 두 가지로 첫째, AI 테마가 프런티어 모델(LLM) 개발사, 아시아 반도체, 광통신 등 밸류체인 단위로 세분화되고 투자자산도 AI 인프라 회사채와 비상장 AI기업까지 확장. Global X LLM ETF(LLMA),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ACHP), Tuttle Capital Photonics Income Blast ETF(OPTO)는 각각 AI 모델 개발사,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광통신·포토닉스 산업에 집중. 여기에 Defiance AI Infrastructure Bond ETF(AIBN)는 AI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대상을 주식에서 회사채로 확대했으며, Leverage Shares MANGOS ETF(MGOL)는 주요 기술기업과 비상장 AI 기업에 대한 간접 익스포저를 추구. AI 외 성장 테마에서는 REX Peptide ETF(PEPT)가 펩타이드 관련 헬스케어 산업에 특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 ETF 투자영역이 단순히 산업·테마 단위에서 세분화되는 것을 넘어, 동일한 성장 테마 내에서도 밸류체인 구간, 투자자산, 손익구조에 따라 상품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음.

옵션·구조화·멀티에셋으로 ETF 활용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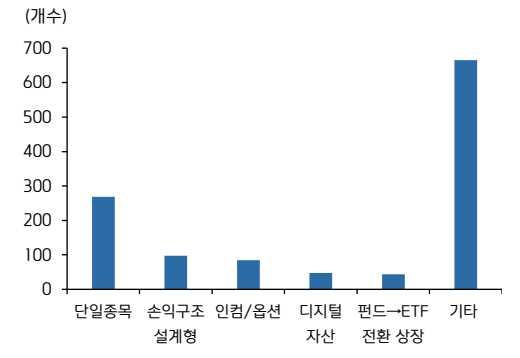
둘째, 구조화 증권과 헤지펀드 영역에 머물던 오토콜러블, 옵션/인컴, 롱숏, 멀티에셋 등 다양한 전략이 ETF에 접목되면서 포트폴리오 활용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 Calamos Laast-Of Autocallable Income ETF(CAYN)와 FT Vest Laddered Autocallable Buffer & Resilient Income ETF(ACYB)는 오토콜러블 기반 구조화 인컴 전략을 제공. NEOS Silver High Income ETF(SLVI)는 은 관련 익스포저에 옵션을 결합했고, YieldMax SKHY Option Income Strategy ETF(YSKH)는 SK하이닉스 ADR을 기초로 한 합성 커버드콜 전략으로 주간 분배를 추구. VanEck Wealth Builder ETF(WBMO) ETF 재간접 방식으로 주식·채권·금·비트코인을 하나의 상품에 담은 멀티에셋 전략을 구현.

미국 연도별 신규 ETF 출시 건수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2026년 미국 신규상장 ETF 유형별 분류



주) 2026년 10월 말 기준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AI 투자영역 세분화 트렌드 지속

AI 투자영역이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중심에서 산업 내 세부 밸류체인과 다양한 투자자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AI 모델의 성능 경쟁과 추론 수요 증가는 고성능 반도체뿐 아니라 네트워크·광통신 등 인프라 전반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중이다. AI 산업은 모델 개발과 학습 인프라 구축이 지속되는 동시에 실제 서비스 확산과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설비투자 규모뿐 아니라 밸류체인별 수요 증가의 지속성과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신용위험도 새로운 투자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신규 상장 ETF에서도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와 투자 수요를 반영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AI 밸류체인 내 투자대상이 한층 세분화**되고 있다. Global X LLM ETF(LLMA)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상용화 관련 기업에 집중하고,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ACHP)는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Tuttle Capital Photonics Income Blast ETF(OPTO)는 광통신·포토닉스 관련 기업에 옵션 전략을 결합해 AI 인프라 성장 수혜와 인컴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는 AI 투자 기회가 특정 산업이나 소수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기보다, 모델·컴퓨팅·메모리·데이터 전송 등 기능별로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연산량과 데이터 처리 수요가 늘어날수록 반도체의 연산 성능뿐 아니라 칩 간·서버 간 데이터 전송 효율과 전력소비가 중요해지는 만큼, 광통신과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투자 확대의 후속 수혜 영역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산의 범위 역시 주식에서 채권과 비상장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Defiance AI Infrastructure Bond ETF(AIBN)는 하이퍼스케일러·반도체 등 AI 인프라 관련 기업이 발행한 달러표시 회사채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기존 주식형 AI ETF와 차별화된다. AI 투자 확대가 기업의 매출 성장뿐 아니라 설비투자 부담, 현금흐름 및 신용위험으로 연결되는 가운데, 동일한 AI 산업에 대해서도 주식과 채권을 통한 서로 다른 수익·위험구조의 투자 접근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AI 주식형 ETF가 AI 투자가 가져올 성장의 크기에 투자한다면, AI 회사채 ETF는 해당 투자를 감당할 기업의 이자지급·원금상환 능력과 신용스프레드 변화에 보다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다만 회사채 투자는 기업의 신용 위험뿐 아니라 국채금리와 듀레이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AI 설비투자 확대가 반드시 채권 투자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Leverage Shares MANGOS ETF(MGOL)는 메타·엔비디아·알파벳·스페이스X 등 상장 기술기업과 앤트로픽·오픈AI 등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를 결합해 기존 ETF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투자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한다. 다만 앤트로픽과 오픈AI에 대한 합산 투자 노출은 순자산의 최대 15%로 제한되며, 비상장기업에 대한 경제적 노출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특히 스왑 등 파생상품의 참조가격이 실제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다를 수 있어 가치평가의 불확실성, 거래상대방 위험, 유동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상품의 등장은 비상장 AI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투자성과는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변화와 차별화될 수 있다.

AI 외 성장 산업에서도 세부 기술 중심의 테마형 ETF 등장이 지속되고 있다. REX Peptide ETF(PEPT)는 GLP-1을 비롯한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기업뿐 아니라 위탁개발생산(CDMO), 약물 전달기술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스킨케어 등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한다. 기존 비만치료제 투자에서 특정 신약 개발사의 임상 성과와 시장점유율 경쟁이 주요 변수였다면, 펩타이드 산업 전반으로 투자영역이 넓어지면서 생산설비 확충, 제조공정 효율화 및 약물 전달기술 등으로 수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규 ETF 특징주 1) 테마·섹터 및 일반 주식형 ETF

상장일	티커	ETF 명	상품 전략·개요	연 보수
10/1	LLMA	Global X LLM ETF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상용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AI 플랫폼·모델 기업에 투자해 AI 산업 성장 수혜 추구	0.75%
10/2	MN	Corgi MANGOS ETF	메타·앤트로픽·엔비디아·알파벳·오픈 AI·스페이스 X 등 6 개 핵심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비상장 기업은 스왑·SPV 등을 활용해 간접 투자 노출 확보	0.20%
10/6	UBIQ	AAM Ubiquitous ETF	미국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기기·통신·플랫폼·디지털 광고·결제·배송 등 6 개 핵심 영역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주요 기업에 투자	0.49%
10/7	CPU	Amplify Top 10 Semiconductors ETF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 10 개에 집중 투자해 AI·고성능 컴퓨팅 및 반도체 밸류체인 성장 수혜 추구	0.49%
	OAKL	Oakmark U.S. Concentrated ETF	미국 주식 가운데 기업의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기업을 소수 선별해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가치주 전략	0.59%*
10/9	OPTO	Tuttle Capital Photonics Income Blast ETF	광통신·포토닉스 산업 관련 기업에 주식·옵션 전략으로 투자해 산업 성장에 참여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인컴 추구	0.99%
10/14	ACHP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	한국·대만·일본·중국 등 아시아 반도체 설계·제조·IP 기업 최대 25 개를 편입해 아시아 반도체 밸류체인 성장 수혜 추구	0.50%
	MGOL	Leverage Shares MANGOS ETF	메타·앤트로픽·엔비디아·알파벳·오픈 AI·스페이스 X 등 상장·비상장 AI 혁신기업에 주식·스왑·옵션으로 투자 노출 확보	0.99%
	PEPT	REX Peptide ETF	GLP-1 등 펩타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위탁생산·약물 전달기술 및 관련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해 펩타이드 산업 성장 수혜 추구	0.65%
	XLEM	State Street S&P 500 Energy Market Sector SPDR ETF	S&P 500 에너지 업종에 종목별 비중 상한 없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해 대형 에너지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 반영	0.12%
	XLKM	State Street S&P 500 Technology Market Sector SPDR ETF	S&P 500 정보기술 업종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해 초대형 기술기업의 시장 영향력 반영	0.12%
	XLPM	State Street S&P 500 Consumer Staples Market Sector SPDR ETF	S&P 500 필수소비재 업종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며 대형 소비재 기업의 종목별 비중 제한 완화	0.12%
	XLYM	State Street S&P 500 Consumer Discretionary Market Sector SPDR ETF	S&P 500 경기소비재 업종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해 대형 소비재·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노출 확대	0.12%
10/15	GANZ	Tuttle Capital Thematic ETF	주요 성장 테마의 직접 수혜기업부터 1·2 차 공급업체와 후방 밸류체인까지 분석해 경쟁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	0.75%
	SMRZ	Global X Small Modular Reactor ETF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개발·인허가·제조·건설·핵연료 관련 기업을 선별해 차세대 원전 상용화 수혜 추구	0.75%
	AVUC	Avantis U.S. Core Equity ETF	미국 대형·중소형주에 투자하며 밸류에이션과 예상 수익성 등 펀더멘털 지표로 기대수익률이 높은 종목 비중 확대	0.17%
	WBEM	William Blair Emerging Markets Equity ETF	신흥국 주식 가운데 장기 이익 성장성·수익성·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 투자	0.65%*
	WBIE	William Blair International Equity ETF	미국 제외 선진국·신흥국의 우량 성장기업에 투자하며 기업 펀더멘털 리서치로 장기 초과수익 추구	0.55%*
10/16	HOID	Tuttle-Rareview Humanoid Robotics ETF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부터 AI 소프트웨어·반도체·센서·액추에이터 등 핵심 부품기업에 투자해 상용화 확대 수혜 추구	0.75%*
10/20	AIBN	Defiance AI Infrastructure Bond ETF	하이퍼스케일러·반도체·AI 컴퓨팅 인프라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해 AI 인프라 관련 채권에 대한 투자 노출과 이자수익 추구	0.41%
	MTGG	MayTech Global Growth ETF	글로벌 우량 성장기업 약 20~30 개를 선별 투자하며, 구조적 성장 테마와 기업 펀더멘털 분석을 결합해 장기 자본차익 추구	0.75%
10/21	RBTX	iShares Future Robotics and Related Technologies Active ETF	로봇 제조사·AI 소프트웨어·반도체·센서·자동화 장비 기업에 투자해 Physical AI 확산에 따른 성장 수혜 추구	0.65%
	POMG	PRIMECAP Odyssey Discovery ETF	미국 중소형 우량 성장주를 펀더멘털 기반으로 선별 투자해 장기 초과수익 추구	0.68%
	TLCE	Thrivent Large Cap Stock ETF	미국 대형주를 대상으로 펀더멘털과 계량모형을 결합해 종목을 선별하고 장기 초과수익 추구	0.30%
10/22	EMAG	Emerging Markets AI Mag 3 ETF	TSMC·삼성전자·SK 하이닉스에 집중 투자해 첨단 파운드리·HBM·메모리 산업 성장 수혜 추구	0.76%
	ICOM	Tema Commodity Income ETF	에너지·귀금속·산업금속·농업 관련 배당기업에 투자해 원자재 산업의 성장 수혜와 배당 인컴 추구	0.75%
	THRU	Tema Commodity Infrastructure ETF	에너지 인프라·광산 장비·물류·원자재 거래소 등 공급망 기업에 투자해 원자재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수혜 추구	0.75%
	FIFT	HCM Select 50 ETF	미국 대형주 가운데 배당수익률·기업가치 지표 등이 우수한 약 50 개 기업을 선별하고 시장 추세에 따라 주식 편입 비중 조절	1.35%
10/23	SMNG	xETFs Samsung Group ETF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 SDI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집중 투자해 반도체·첨단 부품·바이오·금융 등 그룹 전반의 성장 수혜 추구	0.49%*

주1) 연 보수는 총 연간 펀드운용비용 기준. *는 비용 면제·환급 약정에 따른 순보수로, 약정 종료 후 변경 가능
주2) OPTO·AIBN·ICOM은 각각 옵션·채권·배당 인컴 전략을, MN·MGOL은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 노출 확보 전략을 활용하나 모두 특정 산업·기업군에 대한 투자 목적이 뚜렷해 테마형으로 분류
자료: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옵션·대체자산·자산배분으로 확장되는 ETF 활용

ETF의 활용 방식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 커버드콜 중심의 옵션 ETF를 넘어 오토콜러블(조건부 자동상환), 버퍼(손실 완충), 래더(만기 분산) 등 복잡한 구조화 전략을 ETF로 구현하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단순히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이나 배당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의 위험 선호와 시장 전망에 맞춰 수익/손실 구조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상품 혁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높은 금리와 주식시장 변동성이 병존하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자본차익뿐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하방 위험 관리로 확대되며, 기존 구조화상품이나 대체투자 전략을 ETF의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구조화 전략을 활용한 인컴·위험관리 상품이 진화 중이다. 기존 옵션 인컴 ETF는 주로 상승 수익의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주가 하락 수준과 조기상환 조건에 따라 인컴과 손실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다. Calamos Least-Of Autocallable Income ETF(CAYN)는 S&P500·나스닥100·러셀2000 ETF 중 성과가 가장 부진한 자산을 기준으로 쿠폰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세 자산 모두 최초 가격 대비 30%를 초과해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쿠폰을 지급하고, 하락폭이 이를 넘어서면 지급을 유보하는 방식이다. 주가 회복 시 미지급 쿠폰을 받을 수 있지만, 만기에도 하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장 부진한 자산의 하락률 전체에 연동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FT Vest Laddered Autocallable Buffer & Resilient Income ETF(ACYB)는 여러 만기의 오토콜러블 계약에 분산 투자해 인컴을 확보하고, 개별 계약 만기 시 최초 10~15% 하락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CAYN이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인컴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ACYB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쿠폰 수취와 제한적인 주가 조정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전략이다. 같은 오토콜러블 ETF라도 시장의 방향성뿐 아니라 하락폭과 변동성, 조기상환 가능성에 따라 투자성과가 달라지기에 기대 분배수익률보다 손실발생 조건과 수익구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자산과 롱숏 전략을 활용한 수익원 다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NEOS Silver High Income ETF(SLVI)는 은 가격 추종 ETP에 투자하면서 콜옵션 매도로 프리미엄을 확보해 월간 인컴을 추구한다. 은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뿐 아니라 옵션 매도 수익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기존 귀금속 투자에 현금흐름 창출 기능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WisdomTree Efficient Long/Short U.S. SmallCap Equity Fund(WSLS)는 미국 소형주 지수 선물을 통해 주식시장 전반의 상승에 참여하면서, 추가로 유망 종목은 매수하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낮은 종목은 매도하는 롱숏 전략을 결합한다. 소형주 시장의 상승 수익과 종목 선별에 따른 추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업 간 실적과 밸류에이션 차별화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멀티에셋 ETF는 자산배분 전략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VanEck Wealth Builder ETF(WBMO)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을 기본으로 금·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및 비트코인 관련 ETP를 단일 포트폴리오에 결합하고,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자산별 비중을 조정하는 액티브 자산배분 전략을 추구한다. 특히 기존 주식·채권 중심의 60/40 포트폴리오에 실물자산과 디지털자산을 보완적으로 편입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변동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다만 자산군을 다양화하더라도 시장 충격 시 자산 간 상관관계가 높아질 수 있고, 비트코인 등 고변동성 자산의 편입이 반드시 분산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자산배분 비중과 리밸런싱 방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및 최대 낙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신규 ETF 특징주 2) 전략형 ETF

상장일	티커	ETF 명	상품 전략·개요	연 보수
10/1	OCT	VanEck U.S. Equity Buffer ETF – October	SPY 기반 FLEX 옵션으로 연간 상승수익률에 상한을 설정하는 대신 최초 17% 하락에 대한 버퍼 추구	0.50%
	OCTI	AllianzIM International Equity Buffer15 Uncapped Oct ETF	해외 선진국 주식 ETF에 옵션 전략을 적용해 연간 최초 15% 하락에 대한 버퍼를 제공하면서 상승 참여 추구	0.79%
	TDEM	T. Rowe Price Dynamic Emerging Markets Bond ETF	신흥국 국채·회사채·현지통화 채권에 투자하고 국가·통화·채권 유형별 비중을 조정해 인컴 및 자본차익 추구	0.45%
	TRIL	VegaShares Trillions ETF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글로벌 초대형 기업을 선별하는 규모 기반 투자전략으로 장기 성장 수혜 추구	0.49%
	XX	Roundhill S&P 500 Target 10,000 2030 ETF	S&P 500 지수가 2030년 1월 10,000포인트에 도달 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 콜옵션 전략. 목표지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콜옵션 가치 소멸 가능	0.99%
10/2	BCOM	Rareview Bloomberg Commodity Index ETF	에너지·귀금속·산업금속·농산물 선물에 분산 투자하며 Bloomberg Commodity Index 총수익률 추종	0.49%*
10/6	GMAC	Simplify Brookwood Global Macro ETF	글로벌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 여러 자산의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투자 기회를 활용하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	0.50%
	HFIX	Nomura High Yield Total Return ETF	미국 하이일드 채권 가운데 현금흐름과 부채상환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이자수익 및 자본차익 추구	0.45%
10/7	ACYB	FT Vest Laddered Autocallable Buffer & Resilient Income ETF	오토콜러블 계약을 만기별로 분산해 인컴을 추구하며, 개별 계약 만기 시 최초 10~15% 하락에 대한 손실 완충 추구	0.75%
	RINK	Russell Investments Multisector Bond ETF	투자등급·하이일드 회사채, 레버리지론, 유동화채권 등 다양한 채권 섹터에 분산 투자해 인컴과 자본차익 추구	0.49%
	SLVI	NEOS Silver High Income ETF	은 현물 관련 ETP에 투자하고 옵션 인컴 전략을 결합해 은 가격 상승 참여와 월간 분배수익 추구	0.78%
	SPXP	Direxion U.S. 500 Plus ETF	S&P 500에 100% 노출하면서 원자재·통화·채권 선물의 추세추종 전략을 추가하는 자본효율형 ETF	0.92%
10/8	WSLS	WisdomTree Efficient Long/Short U.S. SmallCap Equity Fund	미국 소형주에 투자하면서 시장중립형 퀀트 롱숏 전략을 결합해 주식시장 상승 참여와 알파 수익 추구	0.88%
	WTAL	WisdomTree Global Alpha Fund	글로벌 주식에 롱숏 전략을 적용해 시장 방향성과 차별화된 알파 수익 추구	0.88%
10/9	VGTX	XFUNDS Technology Income ETF	미국 기술주 및 기술주 ETF에 투자하고 옵션 인컴 전략을 결합해 기술주 상승 참여와 현금흐름 추구	0.75%
10/14	RTHY	F/m Long-Term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y ETF	잔존만기 25년 이상 미국 물가연동국채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해 인플레이션 연동 이자수익과 실질금리 하락 시 자본차익 추구	0.19%
10/19	SQBR	FT Vest U.S. Equity Quarterly 20 Barrier ETF	SPY 기반 FLEX 옵션을 활용해 상승 수익률에 상한을 설정하는 대신, 분기 말 기초자산 하락률이 20% 이내면 손실을 방어하는 조건부 배리어 전략. 하락폭이 20%를 초과하면 손실 완충 기능이 적용되지 않음	0.85%
10/21	SCIN	Schwab International Bond ETF	미국 외 글로벌 투자등급 채권에 분산 투자하고 달러 환헤지를 적용해 이자수익과 분산효과 추구	0.06%
	TSIE	Thrivent Securitized Income ETF	MBS·ABS·CLO 등 유동화채권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수익 및 채권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추구	0.40%
10/23	OVQ	Overlay Shares Nasdaq 100 Income ETF	나스닥 100 ETF(QQQM) 투자에 S&P 500 지수 기반 풋옵션 스프레드 전략을 결합해 주식 상승 참여와 월간 인컴 추구	0.97%
	QQDH	Tuttle Capital Innovation 100 Income and Hedge ETF	나스닥 100 지수 투자에 옵션 인컴과 일일 하락 헤지를 결합해 프리미엄 확보 및 급락 위험 완화 추구	0.95%
10/26	CAYN	Calamos Least-Of Autocallable Income ETF	SPY·QQQ·IWM 중 최악 성과 자산에 연계되는 오토콜러블 구조로 조건부 쿠폰 인컴 추구. 만기 배리어 이탈 시 손실 확대 가능	0.74%*
	RADD	AB US Research Advanced ETF	미국 주식에 기업 펀더멘털 리서치와 수익성·밸류에이션·모멘텀 등 계량모형을 결합해 초과수익 추구	0.25%
10/27	WBMO	VanEck Wealth Builder ETF	글로벌 주식·채권·금·원자재·인프라·비트코인 관련 ETP를 활용한 액티브 자산배분으로 장기 자본차익·인컴 추구	0.26%*
	YSKH	YieldMax SKHY Option Income Strategy ETF	SK 하이닉스 ADR의 합성 롱 포지션과 콜옵션 매도 전략을 결합해 옵션 프리미엄과 주간 분배수익 추구	1.01%

주1) 연 보수는 총 연간 펀드운용비용 기준. *는 비용 면제·환급 약정에 따른 순보수로, 약정 종료 후 변경 가능
주2) 전략형 ETF는 특정 산업·테마보다 옵션·인컴, 자산배분, 롱숏, 팩터, 채권 운용 등 투자전략의 차별성이 핵심인 상품으로 분류
자료: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기존 펀드의 ETF 전환·ETF 클래스 신설도 지속

신규 ETF 출시뿐 아니라 기존 뮤추얼펀드의 ETF 전환과 ETF 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품 공급도 지속되는 추세다. 최근 1개월간 Hartford, William Blair, Sequoia 등 운용사에서 기존 뮤추얼펀드 5개를 ETF로 전환했고, Allspring, GMO, Dimensional Fund Advisors 등에서는 5개 상품에 ETF 클래스를 신설했다. 이와 별도로 Dimensional Fund Advisors의 기존 ETF 3개는 멀티클래스 구조로 재편됐다.

이는 새로운 투자전략 개발뿐 아니라 기존 운용전략과 고객 기반을 ETF 시장으로 이전·확장하는 움직임으로, 운용사 입장에서는 기존 펀드의 운용성과와 투자 노하우를 유지하면서 ETF의 거래 편의성, 세제 효율성 및 유통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ETF 클래스 구조는 기존 뮤추얼펀드를 유지하면서 ETF 투자자까지 확보할 수 있어 상품 라인업 확장의 효율적인 수단이다. 미국 ETF 시장의 성장은 신규 상품 출시뿐 아니라 기존 펀드 자산의 ETF 전환과 멀티클래스 구조 확산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기존 펀드의 ETF 전환상장 및·ETF 클래스 신설

상장일	티커	ETF 명	상품 전략·개요	구분
10/5	DFAC	DFA U.S. Core Equity 2 Portfolio ETF Class Shares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투자하며 가치·수익성 지표를 반영해 기대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비중 확대	ETF 클래스 재편
	DFAS	DFA U.S. Small Cap Portfolio ETF Class Shares	미국 소형주에 분산 투자하며 기업가치와 수익성 요인을 반영해 장기 초과수익 추구	ETF 클래스 재편
	DFAT	DFA U.S. Targeted Value Portfolio ETF Class Shares	미국 소형 가치주와 수익성 우수 기업에 집중해 가치·퀄리티 프리미엄 확보 추구	ETF 클래스 재편
10/14	DFGV	DFA Intermediate Government Fixed Income Portfolio ETF Class Shares	미국 중기 국채·정부기관채에 투자해 이자수익과 금리 변동에 따른 자본차익 추구	ETF 클래스 신설
10/19	ACIV	Hartford Alpha Capture International Value ETF	미국 제외 해외 가치주를 대상으로 펀더멘털 분석과 종목 선별을 통해 초과수익 추구	뮤추얼펀드 전환
	HINC	Hartford High Yield ETF	미국 하이일드 회사채에 투자해 높은 이자수익과 적극적 신용위험 관리를 통한 총수익 추구	뮤추얼펀드 전환
	SEQ	Sequoia ETF	장기 경쟁우위와 내재가치 대비 투자 매력이 우수한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해 장기 자본차익 추구	뮤추얼펀드 전환
	WINC	William Blair Emerging Income ETF	신흥국 국채·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해 인컴과 장기 총수익 추구	뮤추얼펀드 전환
10/21	AHIC	Allspring Short-Term High Income Fund ETF	단기 하이일드 회사채에 투자해 금리 민감도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 추구	ETF 클래스 신설
	AHYM	Allspring High Yield Municipal Bond Fund ETF	미국 하이일드 지방채에 투자해 투자등급 지방채 대비 높은 면세 인컴 추구	ETF 클래스 신설
	ASTM	Allspring Strategic Municipal Bond Fund ETF	미국 지방채의 신용등급·만기별 투자 기회를 활용해 면세 인컴과 장기 총수익 추구	ETF 클래스 신설
	GMIE	GMO International Equity Fund, ETF Class	미국 제외 해외 선진국 주식에 밸류에이션·퀄리티 기반 계량전략을 적용해 장기 초과수익 추구	ETF 클래스 신설
10/26	ACIN	Hartford Alpha Capture International Equity ETF	미국 제외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기업 펀더멘털 리서치와 종목 선별에 기반한 장기 초과수익 추구	뮤추얼펀드 전환

자료: 각사, 키움증권 리서치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